

순창군, 현장 중심 행정 강화

최영일 군수, 5월까지 11개 읍·면의 43개 현안 사업장 및 영농현장 방문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도 변함없이 영농 현장과 주요 현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현장 방문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됐으며, 순창읍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1개 읍·면의 43개 현안 사업장 및

영농현장을 방문해 군정을 면밀히 점검 예정이다.

방문 첫날, 최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중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현장을 찾았다. 직접 기숙사 곳곳을 살펴 오는 18일 입국 예정인 라오스 여성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 지 확인하고 점검했다.

같은 날 민선 8기의 5대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경천·양지천 수변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 사항과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어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의 경기장 시설 개선 현장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누수 없는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앞으로 인계 농촌 유학시설 조성사업, 동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적성 원촌지구 마을하우스도 설치사업, 유등 삼진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북홍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 구립 치천지방 하천 정비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두름 수확 시기를 맞아 두름 수확 및 고추 정식, 모내기 준비 현장도 방문하여 구슬땀을 흘리는 농가를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필수"라며, "모든 사업을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18일 입국 예정인 라오스 여성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 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

남원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다양한 지원책 검토 등

남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남원시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처해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市)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이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남원시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운영하느라 애쓰신다고 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기업의 인력난 문제 등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경청했다.

또한, 최 시장은 기업인들이 토로한 고충에 대해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관내 중소기업 물건 사주기△중소기업인들이 모이고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건축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학 설립에 따른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1기업-1담당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수시로 경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소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 구축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등 중소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 모두 발언에서 최 시장은 "남원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서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환으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인재하당 건립, 서남대를 활용한 글로벌 대학 설립, 신성장 산업을 위한 드론과 바이오산업 추진 등을 매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과 남원발전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동반성장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적 비전에 공감하며 이번 간담회에 대해 남원시의 다채로운 지원책을 칭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호평했다.

한편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 각 계각층의 다채로운 의견 들을 청취,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임실군청 소속 사격팀 김예지 선수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임실군청 사격 김예지 선수 파리올림픽 태극마크 출전

심 민 군수 "부단한 노력 일궈낸 값진 성과, 최상의 지원 아까지 않은 터"

임실군청 소속 사격팀 김예지 선수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군에 따르면 김예지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0m 공기권총과 25m 권총, 2종목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4년 파리올림픽 사격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김 선수는 10m 공기권총에서 5차전 합산 2,315.8점으로 2위를 달성했다.

또한 주 종목인 25m 권총에서도 5차전 합산 2,346점으로 2위를 달성해 영광스러운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특히 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15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2종목에 출전한다. 김 선수는 2018년부터 임실군

청 사격팀 선수로 활약해 왔다. 임실군은 심 민 군수의 각별한 관심 속에 김 선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 선수의 이같은 영광 뒤에는 관민수 감독의 부단한 지도와 역할이 매우 컸다. 김 선수는 관 감독의 지도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며 두각을 드러냈다. 2024 자카르타 아시아선수권 대회 개인 은메달·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오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빛 총성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관민수 감독을 필두로 4명의 선수로 구성된 임실군청 실업 사격팀은 2005년 창단해 지난해 참가한 7개 전국대회에서 개인·단체 우승 4회, 준우승 4회, 3위 3회의 성적을 거뒀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남원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한 아동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 위탁을 하는 위탁 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이번 교육은 △ 아동 안전 보호 정책 안내 △위탁 아

동의 이해 △가정위탁보호제도 교육 △가정위탁지원 서비스의 이해 △도달도달 프로그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23개 읍·면·동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 이해 및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연찬의 시간을 가졌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 보호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탁부모에 감사사를 전하며, "남원시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웃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맞춤형 119

안심콜 서비스 홍보

남원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119 안심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병력 정보 등을 입력하면되며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신고와 동시에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119신고 접수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민방위 본교육 실시

순창군은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집합교육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1~2년 차 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일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전국의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해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은 7월 30일까지 디지털 민방위교육(www.civildefense.co.kr)에서 3년 차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와 기본 소양교육, 화생방,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응급처치 등 민방위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재난 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